



중앙잔디광장*에 조성된 연못분수.



단지 내 유실수 정원(위)과 조형물.

아이들은 공룡과 뛰놀고... 연못분수서 정취 즐기며 ‘休~’

아파트의 미학(美學)

호반써밋 더 퍼스트 오션

인근에 해양관광레저 시설 ‘웨이브파크’ 최고 29층 6개 동, 578세대 규모로 조성 가변형 벽체로 성향·개성따라 평면구성

주 출입구에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 중앙 잔디광장에 여가 가능한 연못분수

티라노사우루스 테마 로스트벨리 설치 카페·GX룸·도서관 등 문화공간도 마련

최근 찾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 더퍼스트 오션’.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2번 출구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약 2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시화나래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해양관광레저 복합 시설인 ‘웨이브파크’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호반써밋 더퍼스트 오션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78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 166가구 ▲59㎡B 58가구 ▲59㎡C 58가구 ▲84㎡A 240가구 ▲84㎡B 56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호반’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대부분의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4베이(BAY) 위주의 설계(일부 가구 제외)와 판상형·탑상형 설계 등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가변형 벽체로 소비자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 가구를 배치하고, 주방 팬트리 등 수납공간이 선택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주 출입구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지하 주차 설계로 보행 동선을 분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든 것. 단지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도 있었다.

단지에는 ‘호반써밋 더퍼스트 오션’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앙잔디광장’이 조성됐다. 광장에는 연못분수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분수 인근에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테마로 한 대형 놀이터 ‘로스트벨리’가 설치돼 웅장한 느낌을 선사했다.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유실수 정원’과 티하우스 등이 마련돼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하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썬큰, 카페,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트리케라톱스와 아기공룡 등 다양한 공룡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바이오 톱(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완성했다.

/사진·글=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분수 인근에는 설치된 티라노사우루스를 테마로 한 대형 놀이터 ‘로스트벨리’.